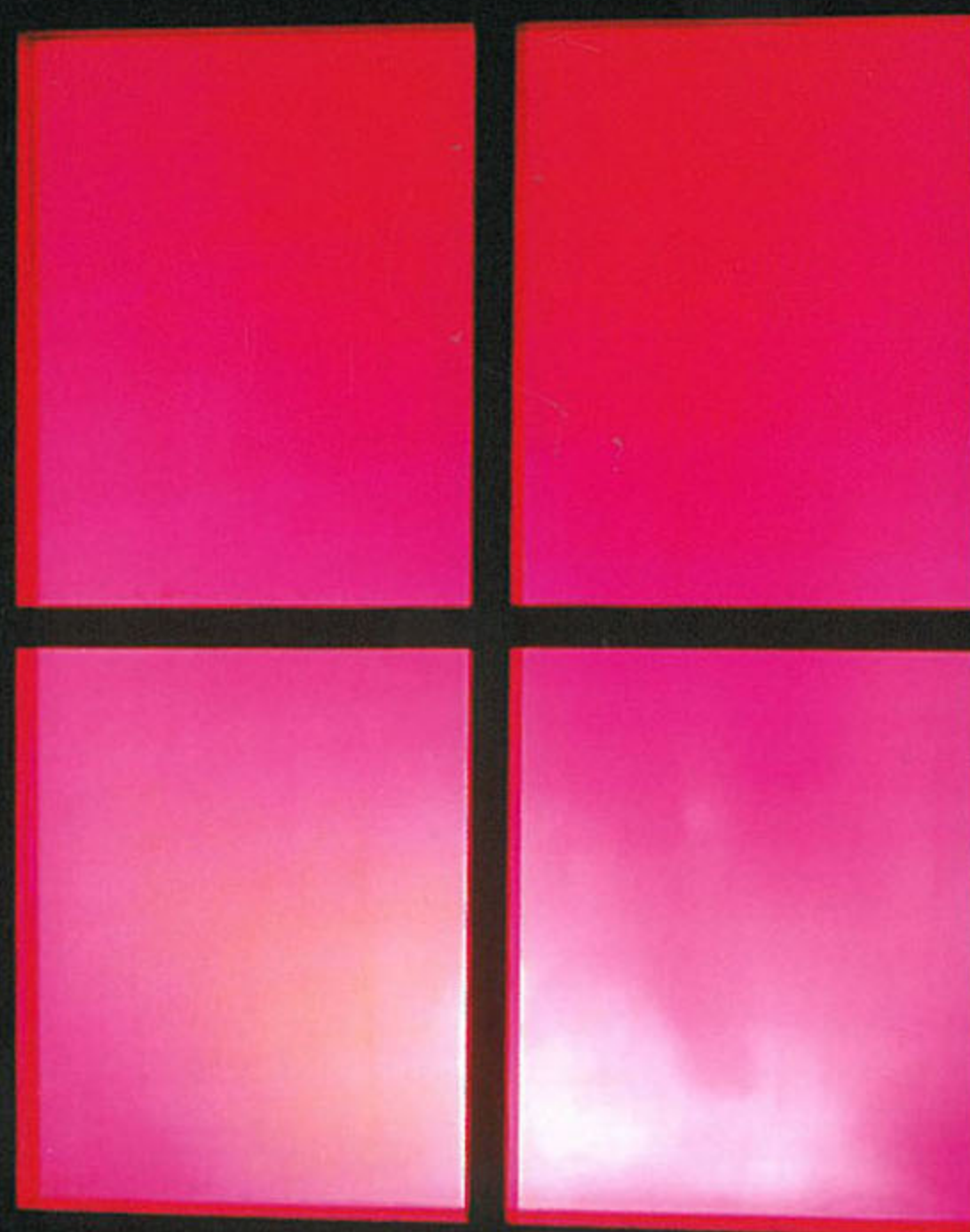


월간미술



2014 10
www.monthlyart.com

용은 간단하다. 베트남 호치민시 외곽에 쿠치터널이라는 지하터널이 있다. 쿠치터널은 베트남전 당시 미군과 싸우기 위해 복잡하게 판 이른바 땅굴이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곳에서 요즘 서구의 관광객들이 총알 한 발에 1달러를 내고 AK47이나 M16을 쏜다. 특별한 연출도 없는 다큐멘터리이다. 모든 장면은 슬로 비디오로 상영된다. 관광객들은 천천히 움직이며 총을 쏘고 그것을 잡는 카메라의 위치는 총구의 정면이다. 물론 방탄유리 뒤라고는 하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좀 든다. 그리고 킬킬거리며 웃고 총을 쏘는 관광객과 베트남전 당시에 만든 선전영화 내레이션이 부딪치면서 지극히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든다. 어쩌면 전쟁이 끝나고 통일을 이뤘으니 전쟁터를 관광상품화하는 여유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는 내내 불편하다. 그 불편함이 핵심이다.

다음은 에릭 보들레르의 일본 적군파를 다룬 <시게노부 메이와 시게노부 후사코, 아다치 마사오의 원정과 27년간 부재한 이미지>라는 긴 제목의 다큐멘터리이다. 유감스럽게도 다큐가 너무 길어 다 보지는 못했지만 본 내용만으로도 지극히 인상적이었다. 다큐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영화와 테러가 유사하다고. 이는 물론 적군파 전투원인 에키타 유키코가 썼다는 “혁명의 시나리오에 영화 각본과 같은 식으로 쓰여 있어야만 한다”에서 따온 것이리라. 영화가 시나리오를 쓰고, 다시 검토하고 등장인물을 캐스팅하고, 스태프들을 모아 촬영하듯이 테러도 그렇다는 것이다. 그럴듯하다. 테러는 목표물을 정하고, 어떻게 작전을 펼칠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자금과 테러리스트들을 모은 뒤 실행한다. 물론 테러에 재촬영이란 없다. 그리고 피차의 목숨이 걸려있다. 섬뜩했다. 테러를 일종의 예술로 볼 수 있다는 시각 자체가 무섭다. 아니다. 이건 인간이 세상 모든 일을 해나가는 기본적인 태도다.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시나리오를 쓴다. 글로 쓰건 상상하건 꿈을 꾸건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시행한다. 대부분 성공하지는 못한다. 예술이란 어쩌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실패한 시나리오에 대한 보상이다. 어떤 형태로든 그렇다. 그래서 테러에 대한, 테러리스트에 대한 다큐란 실패한 테러에 대한 만가(挽歌)이다. 젊은 시절 기사만 보아도 충격적이었던 적군파 사건이 수십 년이 지나 미술관 속에 들어왔다. 냉전, 혹은 열전의 일부였다고 간단히 말할 수도 있지만 여운은 간단치 않다.

다음으로는 미하일 카리카스의 <소리 내는 아이들>과 김인회를 비롯한 무속 연구가들의 굿을 기록한 영상물이다. <소리 내는 아이들>이라는 작업이 흥미를 끈 것은 살풍경한 배경과 아이들 사이의 기이한 대비도 대비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소리가 무당들의 무가와 겹쳤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노래하고 소리 지르는 과정들이 일종의 굿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무속 연구가들이 기록한 굿은 내가 서울에 와서 보았던 퍼포먼스에 가까운 굿들보다는 훨씬 굿 같았다. 굿의 원형들이 담긴 비디



전시장 1층에 설치된 양혜규의 작품. 바닥 테이프로 표시된 나선형의 궤도 중심에 위치한 <소리 나는 보름달-중량 중형 #2>와 손잡이를 잡고 전시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는 <소리 나는 춤-이복 언니> 2014

오늘은 상태가 나빴지만 매력적이었다. 물론 너무 많아 다 보지 못했다. 정말 필요해서 열리는 굿판과 행사로서의 굿 사이의 어마어마한 차이-그걸 아우라라고 해야 할지 절실함의 차이라 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 그리고 김수남의 사진뿐만 아니라 직접 연관이 없을지라도 이갑철의 신기어린 사진들과 육명심의 인상적인 무당 사진들이 같이 전시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물론 전시장에서 만난 디렉터의 말처럼 굿 영상물과 사진과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래 몇 해 동안 고향인 신안군을 촬영하느라 섬을 돌았다. 섬에도 이제 귀신이 없다.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할머니들도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는다. 산 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친인척 누가 죽었다는 소리를 환청으로 듣던 할아버지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던 아이들도 없다. 귀신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즉 기억하고 호명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 전시도 마찬가지다. 이름 부른 메아리가 얼마나 멀리 퍼질지는 알 수 없지만 아시아인의 식민지 경험과 냉전과 열전, 20세기에만 거의 1억 명이상이 강제로 죽은 곳에서 그 피해자, 여성, 고통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지속되어야 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디렉터의 표현대로 그들이 보내는 주문과 암호와 방언은 마땅히 기억되고 해독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일종의 과도한 사명감이나 자신감, 혹은 이 전시와 상관없이 요즘 일부 작가들에게서 보이는, 죽은 자들을 이용하려는 태도는 마땅히 경계해야 하리라. 언젠가 거대한 규모의 녀 건지는 굿이 진도에서 벌어져야겠지만 그때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산자의 부끄러움과 겸손함일 것이다.

참, 섬 주변에 간첩도 없는 것 같다. 배를 타고 북쪽에서 남쪽 섬까지 드나들었다는 그들의 소식도 끊긴 지 오래이다. ●